

01

04 고양, 너는 누구니?

- 고양의 상징이 궁금해요
- 고양시는 어떤 도시인가요?
- 고양' 명칭에 대해 알아볼까요?

02

08 고양의 어제로 출발!

- 떠나요, 고양 역사 답사기
- 우리 동네 이름은 무슨 뜻일까?
- 자랑스러운 고양의 문화유산을 찾아서...
- 존경해요! 고양을 빛낸 인물들

03

22 나의 자랑, 즐거운 고양!

- 고양, 어디까지 가봤니?
- 이름난 고양의 산업을 알려주세요
- 문화예술의 도시 고양 속으로
- 고양은 이런 특산물이 유명해요

04

32 고양시청은 어떤 일을 하지?

- 고양시청은 어떤 일을 하나요?
- 고양시의회는 어떤 곳인가요?
- 도서관 천국, 고양

- 옛날 아주 먼 옛날, 전설 따라 고양 삼만리
- 고양사랑 날말퍼즐

고양, 너는 누구니?



고양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무궁화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이고, 태극기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국기이듯

고양시를 상징하는 것들도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얼굴이 되는

고양시의 상징물은 물론 규모, 인구, 지형에 이르기까지 배워봐요.

내가 사는 고장에 대해 아는 것.

고양사랑의 기본이죠!

고양!

너의 정체를 낱알이 밝혀랏





친근한 자연물과 밝고 활기찬 도시의 이미지를 담은
우리 고장 고양시의 상징물을 소개합니다.



▶ 시의 마크

고양의 '고'와 '양'자를 응용한 마크예요.
청색은 맑은 호수, 녹색은 푸른 녹지대, 황색은 꽃과 밝고
활기찬 고양시 이미지를 상징해요.



▶ 시의 브랜드

바람개비 모양은 '문화와 환경 중심도시'를 뜻해요.
붉은 색은 문화예술, 청색은 첨단지식산업과 정보교류,
녹색은 생태환경 도시를 의미합니다.



▶ 시의 슬로건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고양'
평화의 시작과 새로운 미래를 담은 큰 그릇 같은
고양시로서 / 고양시민이 항상 웃을 수 있는 도시를
표현한 슬로건입니다.



▶ 시의 새- 까치

까치는 친절하고 착한 시민의 모습과 인정이 넘치는
고양시를 상징하지요. 또,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고양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 시의 꽃- 장미

장미는 아름다움과 사랑을 상징하는 꽃이에요.
특히 우리 고장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특산물이기도 합니다.



▶ 시의 나무- 백송

우리 고장에서 가장 유명한 천연기념물인
하얀색 소나무예요. 이 나무처럼 깨끗하고 변함없이
발전하라는 뜻을 지니고 있지요.

아이디어가
반짝반짝!

내가 고양시 슬로건을 만든다면? 나만의 슬로건을 만들어 봐요.

1 - 2

고양시는 어떤 도시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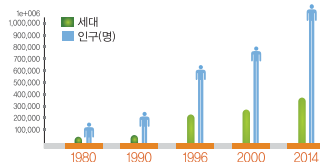


고양시는 대한민국에서 10번째로 100만 인구가 된 큰 도시예요.
예전에는 대부분 조용한 전원마을이었다가
1990년대 초 일산신도시 개발과 함께 무럭무럭 성장하여
지금是我们나라를 대표하는 대도시가 되었어요.



• 인 구 1,043,633명 / 413,484세대 (2018. 7월 말 기준)

- ▶ 1980년 : 15만 5천 명, 3만 4천 세대
- ▶ 1990년 : 24만 5천 명, 6만 5천 세대
- ▶ 1996년 : 65만 8천 명, 21만 5천 세대
- ▶ 2000년 : 80만 명, 26만 세대
- ▶ 2014년 : 100만 6천명, 38만 2천세대



• 행정구역 3개구 39개동

• 면 적 268.05 km² (경기도의 2.6%)

• 위 치 대한민국 중서부, 서울의 서북 인접 지역의 수도권에 위치

• 지 형 북동쪽 북한산과 남서쪽 한강 사이의 완만한 평야지대

• 기 후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의 중간 형태 / 강수량 연평균 1,100mm

• 교 통 전철 : 수도권 3호선, 경의선 복선전철

— 국도 : 국도 1호선, 39호선, 자유로

— 지방도 : 7개 노선 6km

고양
QUIZ

▶ 인구가 100만 명 되는 해는 언제였을까?

▶ 고양시에 있는 동의 개수는?

1 - 3

'고양' 명칭에 대해 알아보까요?

5,040년전 한반도 최초로 벼농사를 지을 만큼 살기 좋은 이 땅을
조선 태종 임금님이 '고양'이라 이름 지어 주셨어요.
예로부터 역사와 문화의 고장이었던 우리 고양시!
다가올 통일시대와 신한류를 이끄는 국제 도시로 성장하고 있어요.
어때요? 고양시민이라는 것, 자랑스럽지 않나요?



벌써 600살이 넘었다구?

고양시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구나~

고봉과 덕양이 만난 이름! “고양”



고양시 고지도 '청구요람'

우리 고장은 원래 고봉현과 행주(덕양)현으로 나뉘어져 있었지요.
조선시대에 두 현을 합치게 되면서 이름을 고봉현이라 불렀는데
이에, 행주에 살던 백성들이 불만을 품고 이름을 바꿔달라는 상소를 올렸대요.
그리하여 조선조 태종때 **고봉의 첫 글자 '고(高)'**와 행주의 옛 이름인
덕양의 '양(陽)'자를 따서 '**고양(高陽)**'으로 이름이 바뀌게 된 거죠.
이 날이 1413년 음력 3월 23일이므로 고양시의 생일인 셈입니다.

고양600년 기념전시관

고양600년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전시관으로 호수공원 안에 있어요.
6개의 전시실에서 고양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최첨단 영상 시스템으로 볼 수 있습니다.

go! study



고양600년 기념전시관에 가볼까?

우대반 권을 장군을 본받아
행주대첩 디지털 게임 한판 어때?

고양의 어제로 출발!

역사를 알아야 미래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지요?
자랑스러운 우리 고장의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아봐요.
고양은 신도시가 생기면서 갑자기 생긴 도시가 아니라 아주 옛날부터 한반도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온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고장이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곳곳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문화재 등
고양시 역사의 흔적을 찾아보기로 해요.

아주 먼 옛날
고양에선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





아세요? 한반도에서 제일 처음 있었던 재배 벼씨가 고양 땅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 그만큼 고양시에서는 아주 일찍부터 사람이 살았답니다. 오랜 역사를 간직한 고양의 어제,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선사시대	삼국시대	남북국시대	고려시대	조선1413년 (태종13년)
5,040년 전 한반도 최초의 재배 벼씨인 가와지 벼씨와 빗살무늬 토기, 신석기 유물 등이 발굴된 고양지역은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었답니다.	고양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이 서로 욕심 내던 땅이었어요.	이 시대에는 고봉현과 우왕현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신라에 속해 있었지요.	지방의 관리가 파견되지 않은 지역으로 고봉현과 행주(덕양)현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고봉'과 '덕양'을 합쳐 지금의 '고양'이란 이름이 만들어졌어요.
조선 1428년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1992년	대한민국 2018년
벽제관에 이어 북한산성, 행궁이 세워진 고양시는 우리나라와 해외를 잇는 관문이었어요.	경의선이 만들어졌고 이로 인해 일산 지역은 경제와 물류의 중심이 되었어요.	북한산 백운대에 3.1운동 암각문을 새긴 독립운동가 정재용 등 고양에서도 항일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2월 1일 고양군에서 고양시로 승격되었고, 신도시 개발이 시작되며 커다란 변화와 발전을 맞이하게 됐어요.	105만 인구가 모인 행복도시 고양시는 평화시대와 함께 동북아 교통, 경제, 문화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시민행복중심의 평화경제특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고양 QUIZ



▶ 고양땅에서 발견된 5,040년 전 한반도 최초의 벼농사 기원이 된 벼씨 이름은?

2 - 2

우리 동네 이름은 무슨 뜻일까?

내가 사는 동네 이름은 무슨 뜻일까?
고양 지역에 속한 동 이름의 유래를 알아봅시다.
마을의 이름마다 숨겨져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은
마치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옛날 이야기 같아요.





덕양구

◆ 신도동 (神道洞)

현재 삼송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는 곳으로 1914년 당시 신혈면의 '신'자와 하도면의 '도'자를 합쳐 생긴 이름입니다.

◆ 성사1·2동 (星沙洞)

고양어울림누리, 원당시장 등이 유명한 성사 1·2동은 1912년 일제강점기, 이 지역의 대표적인 마을인 성라산촌에서 '성'자를 따고 사근사리마을에서 '사'자를 따서 만든 이름이에요.



▲성라산(국사봉)과 별이산(베라산) 마을 모습

◆ 흥도동 (興道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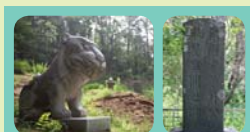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와 이신의, 김전, 익령군 묘 등 여러 유적이 남아있는 흥도동은 원흥동의 '흥'자와 도내동의 '도'자를 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 주교동 (舟橋洞)

고양시청이 있는 주교동은 배로 다리를 만든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옛날에 이곳에 셋강이 있었는데 다리가 없어서 배를 가지고 다리를 만들어 건너 다녔다고 해서 생겨난 이름입니다.

◆ 효자동 (孝子洞)

조선시대 박태성이라는 효자가 이곳에 아버지의 묘를 쓰고 매일 참배를 했는데 호랑이마저 그 효심에 감동을 받았다 하여 마을 이름을 효자동이라 했습니다.



▲효자동의 유래가 된 박태성의 효자 비석과 박효자가 타고 다녔다는 호랑이 석상 모습

◆ 원신동 (元新洞)

원당동과 신원동에서 한 글자씩 따서 생긴 이름으로 서삼릉과 공양왕릉, 송강 정철, 월산대군 유적이 있는 곳이에요.

◆ 창릉동 (昌陵洞)

서오릉에 조선조 제8대 예종과 왕비인 안순왕후 한씨가 묻힌 창릉이 있어 창릉이라 불리게 됐으며 주변에 창릉천이 흐르고 있어요.



▲조선조 제8대 예종과 왕비인 안순왕후 한씨가 묻힌 창릉

◆ 관산동 (官山洞)

조선시대부터 한양에서 평양, 개성, 의주, 중국 등을 왕래하던 관원들이 묵었던 객사와 고양군청 등 중요한 관청이 많았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명칭입니다.

◆ 고양동 (高陽洞)

조선 인조 때부터 일제강점기인 1914년까지 290년간 고양군청이 있었기 때문에 고양동이라 불리었으며 오랜 기간 고양군의 중심이었어요.



▲약 290년간 고양군청이 있었던 벽제관과 군청자리

◆ 능곡동 (陵谷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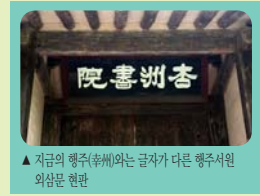
1900년대 초반 경의선 능곡철도역을 만들었는데 주변에 능골(陵谷)마을이 있었어요. '능곡'은 이 마을의 이름을 한자로 바꿔서 붙인 이름이지요.

◆ 화정1·2동 (花井洞)

화정은 옛 화정1리 화수마을과 화정2리 찬우물에서 각각 ‘꽃 화(花)’자와 ‘우물 정(井)’자를 따서 붙인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 행주동 (幸州洞)

행주산성 안과 밖 마을로 행주내동, 행주외동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본래 살구 나무가 많아 행주(杏州)라 했는데 나중에 한자가 변하여 행주(幸州)가 됐죠.



▲ 지금의 행주(幸州)와는 글자가 다른 행주서원 외삼문 현판

◆ 행신1·2·3동 (幸信洞)

이곳에서 모여 살던 청주 한씨가 후손에게 다행(幸)으로 여기고 서로 믿고(信) 살라 해서 ‘행신’이라 했다는 이야기와 행주의 새로운 마을이라 하여 ‘행신’이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 화전동 (花田洞)

꽃밭을 한자로 옮긴 이름이에요. 예로부터 각종 꽃들이 많이 피어나 꽃밭이라는 뜻으로 화전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 지금의 행주(幸州)와는 글자가 다른 행주서원 외삼문 현판

◆ 대덕동 (大德洞)

마을 한가운데 있는 명산인 대덕산의 이름을 따 대덕동이라 하였대요. 대덕산은 산 기슭에 넓고 큰 덕을 가진 어진 선비가 살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죠.

일산동구

◆ 마두1·2동 (馬頭洞)

마을이 말의 머리 모양으로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정발산이 말이 누운 모양이고 그 머리에 해당하는 마을이라 하여 ‘말 마(馬)’자에 ‘머리 두(頭)’자를 쓴 것이지요.



▲ 식사동의 유래가 된 고려 공양왕릉 전경

◆ 식사동 (食寺洞)

고려 공양왕이 식사동 너머에 있는 원당동 왕릉골에 숨어 있을 때 이곳의 사찰에서 왕에게 밥을 주었다고 하여 ‘밥 식(食)’, ‘절사(寺)’자를 써 식사동이 되었다고 해요.

◆ 풍산동 (楓山洞)

단풍나무가 많았던 풍동(楓洞)과 산에 붉은 흙이 많았던 산황동(山黃洞)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을 따서 붙인 이름입니다.



▲ 고봉동과 중산동의 지명 유래가 된 고봉산

◆ 중산동 (中山洞)

중산동은 고유지명인 중산마을에서 유래되었는데 중산은 마을에 위치한 고봉산이 고양의 역사적 중심지에 해당해 붙여진 이름이에요.

◆ 정발산동 (鼎鉢山洞)

이 마을에 정발산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에요. 정발산은 산의 생긴 모양이 마치 술과(술 정, 鼎)같고 밥 그릇(주발, 鉢)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 정발산동과 마두동 사이에 있는 정발산의 모습

◆ 장항1·2동 (獐項洞)

마을의 모양이 노루의 목처럼 길다고 하여 ‘노루 장(獐)’자와 ‘목 항(項)’자를 썼다는 이야기와 정발산에 노루가 많아 생긴 이름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 백석 1·2동 (白石洞)

흰돌이 마을을 지켜주고 있다는 전설을 가진 백석동은 옛 백석4리 흰돌마을 도당산에 가로 약 2미터, 세로 약 1미터 크기의 백석이 놓여져 있어 붙여진 이름이에요.

◆ 고봉동 (高峰洞)

고대로부터 사용된 이름으로 해발 208.6m의 고봉산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자 봉화(烽火)를 올렸다고 하여 고봉동이라 부르기도 했대요.



▲ 마을을 지켜주는 백석동의 신령한 돌, 백석 흰돌

일산서구

◆ 송포동 (松浦洞)

고유지명 송산면(松山面)과 사포면(巳浦面)에서 한글자씩 따서 붙인 송포동은 대화동과 법곶동을 합친 행정동으로 호미길리로 유명한 마을이에요.

◆ 일산 1·2·3동 (一山洞)

일제 시대 한산마을의 원래 이름인 '한피'를 따서 일산이라 불렀다고도 하고 고봉산을 뜻하는 '큰산'의 순수 우리말인 '한산'을 일본인들이 낮추어 불렀다는 이야기, 한산마을의 옛 이름인 일산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 탄현동 (炭峴洞)

숯을 굽던 고개 아랫마을이라는 뜻으로 탄현동을 한글로 풀면 숯고개가 되지요. 예로부터 이곳은 참나무가 많아서 숯을 구웠다 하여 숯고개라 불렀다고 해요.

◆ 송산동 (松山洞)

덕이(德耳), 가좌(加佐), 구산(九山) 3개 동이 합쳐진 곳입니다. 송산은 소나무산을 말하는데 이 지역에 소나무가 많아 조선 중기 이전부터 사용되었어요.

◆ 주엽 1·2동 (注葉洞)

골동산(곡동산)꼭대기에서 보면 마을이 잎사귀 모양으로 보여 주엽이라 했다고도 하고 가을이 되면 마을 가운데 색깔에 큰 나뭇잎이 떨어져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하지요.

◆ 대화동 (大化洞)

작은 마을이 큰 마을로 변했다는 뜻으로, 김동, 장촌, 김서, 백암, 강서, 성저리 등의 여러 마을이 합쳐져 '크게(大) 변화(化)된 마을'이라는 뜻을 갖게 됐어요.



▲ 고양지역 교룡의 중심이었던 일산역의 옛 모습



▲ 숯을 굽던 숯고개에서 신도시로 변신한 탄현동



▲ 정송나무, 효자나무로 불리는 회화나무



▲ 작은 마을에서 큰 마을로 변화한 대화동

고양

MEMO

1. 내가 사는 동 이름의 한자와 뜻을 적어봐요.
2. 우리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뭔가요?
3. 우리 마을의 발전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2 - 3

자랑스러운 고양의 문화유산을 찾아서...

고양의 동쪽엔 북한산이 있고, 서쪽으로는 한강이 흐르죠.
고려의 수도 개경, 조선의 수도 한양과 가까워서
수많은 문화유적과 유산들이 남아 있는 곳이 바로 고양땅이에요.



※ 고양의 문화유산을 한눈에 살펴볼까요?

(2018.11. 기준)

종 류		지정 건수	비 고
국 가 지 정 문화재	보물	6	태고사 원증국사탑비, 원증국사탑 등
	사적	7	행주산성, 벽제관지, 북한산성, 고려 공양왕릉, 서오릉, 서삼릉 등
	명승	1	삼각산
	천연기념물	1	송포 백송
	중요무형문화재	1	불화장
경기도 지 정 문화재	유형문화재	25	행주대첩비, 북한산성금위영이건기비 등
	기념물	6	최영장군묘, 북한산 산영루지 등
	무형문화재	6	송포호미걸이, 금은장 등
	민속문화재	2	일산 밤가시초가
	문화재자료	11	고양향교, 행주서원지 등
등록문화재		7	고양일산역, 고양행주성당 등
향토문화재		64	무덤, 무형문화재 등
전통사찰		9	흥국사, 상운사, 태고사, 무량사, 노적사, 국녕사, 덕암사 등
총 계		146	



서오릉

[사적 제198호, 덕양구 서오릉로 334-92(용두동)]

서오릉엔 경릉, 창릉, 익릉, 명릉, 홍릉의 조선왕가 다섯릉이 있어요. 1960년대에 숙종의 후궁인 장희빈의 대빈묘도 이곳으로 옮겨졌죠.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자랑스러운 문화재랍니다.

서삼릉

[사적 제200호, 덕양구 서삼릉길 233-126(원당동)]

서삼릉은 희릉, 효릉, 예릉의 3릉으로 서울 서쪽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에요. 3릉 이외에도 역대 후궁, 왕자, 공주, 왕후 등의 묘 51기와 역대 왕의 태를 모신 태실이 있고 서오릉과 더불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어요.



흥국사

[전통사찰 제38호, 덕양구 흥국사길 82(지축동)]

신라 661년에 원효대사가 세운 사찰로 경내에 흥국사극락구품도와 괘불,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등 문화재가 보존되어 있지요. 북한산 5개의 높은 봉우리가 한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해요.

북한산성

[사적 제162호, 덕양구 대서문길 375(북한동)]

북한산성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조선의 왕실이 한양의 북쪽을 방어하기 위해 숙종임금님이 1711년 단 6개월에 공사한 산성이에요. 6개의 대문과 8개의 암문, 2개의 수문과 내부에는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복장대, 남장대, 동장대 등 많은 시설이 있었어요. 북한산성은 백성과 함께 국가를 지키려했던 숙종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산성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이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들로 유네스코에서 지정해요. 대표적인 것들은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리스의 아크로폴리스, 중국의 만리장성, 마야문명 유적지 마추피추 등이 있습니다.

go! study





행주산성

[사적 제56호, 덕양구 행주로 15번길 89(행주내동)]

행주산성은 행주동 덕양산 정상에 있는 삼국시대 산성으로 흙과 돌을 이용하여 쌓았어요. 한강 근방의 다른 산성과 함께 적들의 침입을 막는 방어요새의 역할을 한 곳이에요. 우리에게도 임진왜란 당시 3대 대첩 중 하나인 행주대첩이 일어난 곳으로 잘 알려져 있지요. 1603년 세운 '행주대첩비'가 남아 있으며, 권을 장군을 모시는 충장사가 있습니다.

고양향교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69호, 덕양구 대양로 285번길 33-13(고양동)]

조선 태조 7년(1398)에 세운 지방교육기관으로 중·고등학교 수준의 교육을 했던 곳입니다. 이곳에선 공자와 우리나라 유학자들의 위패를 모시고 매년 석전대제를 올린답니다. 시민들이 방문해서 전통예절, 다도체험 등을 체험하기도 하죠.



밤가시초가

[경기도 민속문화재 제8호, 일산동구 햇살로 105번길 36-7(정발산동)]

정발산에 있는 초가로 약 150년 전에 지어진 집이죠. 조선시대 후기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서민들이 살던 농촌주택의 모습이에요. 'ㄱ'자형 안채와 마주 보는 행랑채가 전체적으로 볼 때 'ㅁ'자형으로 되어 있어요.

태고사 원증국사탑비

[보물 제611호, 덕양구 대서문길 197-20(북한동)]

고려시대의 국사인 원증국사의 탑비로 태고사 법당 바로 옆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거북받침돌 위로 비몸을 세우고 머릿돌을 얹은 모습으로 머리는 용처럼 생겼고 등에는 길쭉한 옥각무늬를 채워두었습니다.



태고사 원증국사탑

[보물 제749호, 덕양구 대서문길 197-20(북한동)]

고려 후기 승려인 원증국사 보우의 사리탑으로 무너진 것을 최근에 복원하여 세워놓은 것입니다. 3단으로 이루어진 기단 위로 탑의 몸인 탑신을 올린 후 독특한 모습의 머리장식을 얹었어요. 고양시의 가장 아름다운 부도탑으로 연꽃 무늬와 귀꽃이 장식되어 있어요.



고려공양왕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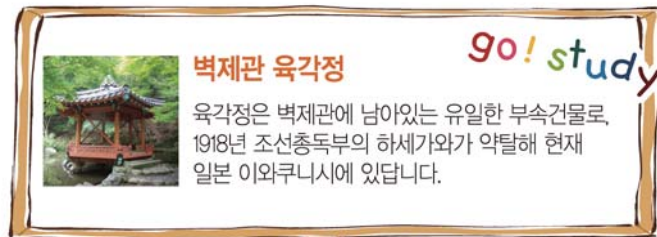
[사적 제198호, 덕양구 서오릉로 334-92(용두동)]

고려 마지막 왕인 공양왕과 그의 부인 순비 노씨의 무덤이에요. 무덤 양쪽으로 문신과 무신상이 있고 무덤 앞에는 소박한 석물이 있는데 비석은 처음에 세운 것으로 보이지만 '고려공양왕고릉'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돌은 조선 때에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벽제관지

[사적 제144호, 덕양구 벽제관로 34-16(고양동)]

중국 사신들이 묵던 벽제관이 있던 터로 고양시가 조선의 국제관문이자 교통중심지였음을 상징하는 점에서 의미가 깊죠.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에 의해 일부가 헐렸고, 한국전쟁 때 모두 불타 없어졌는데 다만 객관의 문이 1960년까지 남아 있다가 무너져 지금은 터만 남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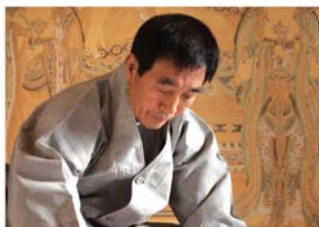


2 - 4

무형문화재는 살아있는 박물관이에요



무형문화재란, 형태로 헤아릴 수 없는 문화 유산으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높은 것을 말해요. 형체가 없기 때문에 그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문화재 지정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불화장 (중요무형문화재 제118호)

불교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그린 것을 탕화라 하는데 이 탕화를 제작하는 장인을 일컬어 '불화장'이라고 해요. 2006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임석환 장인의 작업장 겸 전수소가 대자동에 있어요.



금은장 (경기도무형문화재 제43호)

우리의 전통적인 금은 장신구를 두루 재현하는 등 금은 세공의 맥을 오랫동안 이어오고 있는 장인을 '금은장'이라고 합니다. 현재 보유자로는 1988년부터 화전동에서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이효준 장인이 있지요.



송포호미절이 (경기도무형문화재 제22호)

대화동 뱀개마을 일대에서 전해 내려오는 고양시의 대표적인 민속놀이로 호미씻이라고도 부릅니다. 한해 농사일을 끝낸 후 다음해 농사를 위해 호미를 씻어 걸어둔다는 뜻이며 농요, 춤, 풍물패 등이 등장하지요.



우리나라 중요무형문화재는 뭘까요?

- 제1호: 종묘제례악
- 제2호: 양주 별산대놀이
- 제3호: 남사당놀이(2009년 세계무형 유산 등재)

go! study



향토문화재란 나라가 지정한 문화재 이외에 각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향토 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문화유산을 말해요. 각 시나 도에서 지정하고 관리, 보호합니다.



풍동 당산목 및 산치성 (고양시향토문화재 제40호)

풍동 지역에 약 250여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도당제로 마을의 안녕을 빌며 2년에 한 번씩 치러져요. 마을 산에 있는 대감나무 근방에서 산치성을 올린답니다.



정발산 도당굿 (고양시향토문화재 제41호)

전설에 의하면 정발산 산신령이 역병을 일으키는 동자로부터 주민들을 무사히 지켜주었대요. 이 산신령에게 올리는 곳으로 말머리굿이라고도 하며 정발산에서 2년마다 올리고 있죠.



성석 진발두레패 놀이 (고양시향토문화재 제42호)

성석동 진발마을 일대에서 전해지는 농악놀이로 농번기에 농악으로 등장하며 12마당 놀이를 갖추고 있어요.



백석동 흰돌제 (고양시향토문화재 제48호)

수백 년 전부터 마을의 안녕을 지켜주며 주민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던 흰돌에게 지내는 제사랍니다. 흰돌보존위원회에서 매년 음력 3월 초 길일에 제례를 지냅니다.



고양들소리 (고양시향토문화재 제57호)

옛 고양군 중면 백석리와 원당을 식사리에서 수백 년 간 전승되며 고양지역 토박이 소리꾼의 맥을 이어온 향토민요 (농요)와 고양두레12채농악을 전승·보존하는 단체이지요.



고양선공감 김감역 상여 회다지 소리 (고양시향토문화재 제58호)

김녕김씨 집안에서 장례 시 행하였던 상례문화가 이어져 내려온 것으로 고양선공감 김감역의 장례의식의 맥을 복원하여 보존하고 있어요.



최영장군 위령굿 (고양시향토문화재 제61호)

최영장군의 덕업을 기리고 장군을 신으로 모셔 위령하는 곳으로, 고양시의 지역성과 역사성을 보여주는 향토사적으로 중요한 무형문화자산입니다.

2 - 6

존경해요! 고양을 빛낸 인물들

고양은 유서 깊은 고장인 만큼 예로부터 훌륭한 위인들이 참 많았답니다.
본받고 싶고 존경하고 싶은 우리 고장의 위인들- 우리도 몰랐던
고양 지역의 위인들은 누가 누가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권율

조선시대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해주산성을 지키던 권율 장군은 2,300여 명의 적은 병력으로 왜군 3만 여명을 물리치는 대승을 거두었죠. 이 전투를 해주대첩이라 부르는데 고양시는 해마다 3월 14일이면 해주대첩제라는 문화 행사를 열어 권율장군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있어요.



◀ 해주대첩의 승전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한 해주대첩비

여기서
잠깐...

내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과 그 이유에 대해 얘기해 봐요

▶ 존경하는 인물은?

▶ 존경하는 이유는?



최영

고려시대 장군으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장군 중에 한 분이죠. 젊은 시절부터 왜적을 물리치고 공을 세워 가장 높은 벼슬을 했던 분이랍니다. 왕에게 충성했던 충신이자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명언을 남긴 훌륭한 장군으로 대자동에 그의 무덤이 있어요.



문봉서원의 고양팔현

문봉서원은 문봉동에 있었던 옛날 교육 기관으로 현재 다시 짓기 위해 애쓰고 있어요. 고양을 대표하는 유명한 학자, 선비들의 얼굴 본보기 위해 세워진 곳이죠. 고양팔현이라 불리는 여덟 명의 유명한 학자인 남효온, 김정국, 기준, 정지운, 민순, 홍이상, 이신의, 이유겸 위패를 모시고 있었던 곳입니다.



이신의

임진왜란 때 의병을 거느리고 왜군을 물리친 의병장군이자 고양팔현의 한 분으로 덕양구 도내동에 선생의 묘와 신도비, 장대비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요. 광해군이 잘못된 정치를 하자 목숨을 걸고 충고하였다가 귀향 가는 고초를 겪기도 한 충신입니다.



정철

조선시대의 유명한 문인이며 학자, 정치인이었던 분이예요. 사미인곡, 관동별곡이라는 시조를 짓기도 했으며 우리 고장에 오래도록 머물면서 많은 시를 남겼어요. 신원동 송강 마을에 유적이 있으며 시비와 문학관도 세워져 있습니다.

나의 자랑, 즐거운 고양!

꽃박람회, 북한산, 킨텍스..
그리고 다양한 문화 축제까지.
우리 고양에는 참 유명한 것들이 많아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고양을 보러 오기도 한답니다.
시끌벅적 언제나 신이 나는 우리 고양의
자랑거리를 함께 살펴볼까요?
고양시 역사의 흔적을 찾아보기로 해요.

관광명소와 축제가 가득한
고양의 즐거움 속으로
고고씽~



3 - 1

고양, 어디까지 가봤니?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껴야 할 우리 시의 자랑-
볼 것, 즐길 것이 많은 고양시는 떠오르는 관광도시이자
다양한 문화행사가 가득한 즐거운 곳입니다.
또한, 수준 높은 스포츠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전국적으로 규모가 큰 스포츠 행사가 열리고 있기도 해요.



낭만과 여유가 있는 호수공원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 생태공원으로 전국 산책코스 1위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30만 평에 이르는 넓은 공원에는 수변 광장,
인공섬, 자전거 전용도로, 어린이 놀이터, 자연 학습장, 음악 분수 등
유명한 명소가 참 많아요. 다양한 전시나 축제도 자주 열려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장소예요.



'독도는 우리 땅 북한산은 고양 땅', 북한산

북한산은 수도권 유일의 국립공원으로 가장 높은 백운대는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산 1-1번지에 속합니다.
하지만 북한산이 고양시의 산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고양시는 현재 북한산을 세계문화유산인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국내 최대의 전시장, 킨텍스

킨텍스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시·컨벤션(대회)공간이에요. 서울 모터쇼 등 세계에서 손꼽히는
전시회가 킨텍스에서 성공적으로 열리기도 했습니다.



고양 예술의 상징, 아람누리 & 어울림누리

아람누리는 고양시가 자랑하는 전문공연예술센터로 뉴욕타임즈에서
카네기홀이나 링컨센터에 견주어도 손색없다고 극찬한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예술전당입니다.



어울림누리는 공연장과 문화예술 교육시설, 체육시설이 어우러진
동양 최대 복합문화예술의 공간으로 클래식부터 대중음악, 연극, 무용,
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이 열리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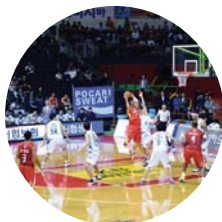


‘대한민국의 스포츠 수도’ 고양시 - 경기장을 찾아 스포츠를 관람하며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볼까요? 목청 높여 신나게 응원을 하는 동안 공부하느라 쌓인 스트레스도, 나쁜 기분도 훌훌~



전국에서 주목하는 스포츠도시 고양, 고양종합운동장 & 고양체육관

새로운 스포츠 중심 도시로 떠오르는 고양시의 대표 스포츠 시설입니다. 중요한 행사가 열리는 고양종합운동장은 원더스, 오리온의 연고지이고 다목적 실내 경기장인 고양체육관은 <K-POP STAR>가 촬영되기도 했어요.



프로농구 전통의 강호, 고양 오리온

프로스포츠팀은 지역을 연고지로 삼아 경기에 출전한다는 사실, 알고 있지요? 오리온은 바로 우리 고양시를 연고로 하는 농구단입니다. 2001~2002년 정규리그 1위와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쥐었고, 2002~2003년에도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한 전통의 농구 명가입니다. 2015~2016시즌에는 정규리그 3위, 챔피언결정전 우승을 하기도 했지요. 시즌은 10월에 개막하고요, 경기장은 고양체육관이에요. 경기장을 찾아 목청껏 ‘고양 오리온’을 응원해 봐요~



‘열정에게 기회를’, 고양 다이노스

프로야구 퓨처스 리그에서 뛰고 있는 NC 다이노스의 2군 구단이에요. 모두가 1군 무대에 오르기 위해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기에 열정만큼은 1군 선수들에 뒤지지 않아요. 고양시와 처음 인연을 맺은 2015년에는 뛰어난 실력으로 일찌감치 중부리그 우승을 확정지었대요. 야구체험행사, 야구용품 베품시장 등 봉사활동도 게을리 하지 않는 고양 다이노스 선수단을 함께 응원해요.



지자체 최초 스포츠통합브랜드 SC Goyang 런칭

2017년 3월 지자체 최초로 SC Goyang이라는 스포츠브랜드를 런칭했어요. SC는 Sporting Club의 줄임말로 스포츠를 즐기는 고양시, 고양시민을 뜻합니다. 고양시의 엘리트, 생활체육인들은 SC Goyang과 BI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국내외 대회에 출전합니다.



책으로 보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면 직접 찾아가서
고양을 둘러싼 푸른 자연과 생태를 몸소 체험하며 즐겨볼까요?
동물원, 습지, 생태공원 등 건강한 놀거리가 가득하답니다.
신기한 동식물과 함께 노는 동안 생태 지식도 쑥쑥~

이색적인 문화체험, 중남미문화원

중남미 지역에서 모은 유물 3,000여 점이 전시되어 있는
곳이에요. 고대 잉카, 마야, 아즈텍 문명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중남미 박물관이죠.



동물 친구가 기다리는 곳, 일산 쥬라리움

어린이들의 천국 쥬라리움은 동물과 사람이 함께 즐기고 소통
하며 교감할 수 있는 현장체험학습장으로 동물들을 품에 안고
먹이를 주며 함께 놀 수도 있지요.



한강의 보물, 장항습지

한강 하구에 있는 습지로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이에요.
30여 종의 멸종위기종을 비롯해 45종 5만 9천여 마리의 물새가
서식하는 한강 생태의 보고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소중한
생태 공간이랍니다.



도심 속의 녹색 낙원, 고양생태공원

도심 속에 버려진 터가 생태공원으로!
12개의 주제로 꾸며진 숲과 102가지의 야생화 군락, 생태연못,
탐방로, 시청각실, 교육장, 생태도서관, 전시실이 있는
생태교육센터가 있어요.



고양사이버역사박물관

2017년에 오픈한 고양사이버역사박물관 '고양 역사이야기'는
인터넷 온라인 역사박물관이에요.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만 있
으면 누구나 손쉽게 고양시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만날 수 있지
요. 고양시사이버역사박물관 '고양 역사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면 고양시 지도 위에 북한산성, 행주산성 등 대표 이미지들이
형상화돼 있답니다.



3 - 4

즐거움이 가득한 도시, 고양



이번에는 기분 전환도 할 겸 왁자지껄 봄비는
쇼핑센터와 테마파크, 전통시장으로 신나게 떠나볼까요?
사람과 구경거리로 넘쳐나서 심심할 겨를이 없지요.
놀거리 · 볼거리가 가득한 고양은 정말 멋진 도시랍니다.

즐거움이 가득한 멀티플렉스, 라페스타 & 웨스턴돔



라페스타는 우리나라에서도 손꼽히는 대규모 쇼핑몰로 쇼핑, 먹거리, 각종 문화행사 등
즐거움이 가득한 장소예요. 라페스타와 마주보는 웨스턴돔은 1만 명이 들어가도
될 만큼 거대한 규모로 쇼핑센터, 레스토랑, 영화관이 있는 쇼핑 문화 공간이죠.

볼거리 · 즐길거리가 넘쳐나는 테마파크, 원마운트 & 아쿠아플라넷



세계 최초로 겨울과 여름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원마운트에는 스노우파크, 워터파크,
스포츠 테마파크, 골프, 휘트니스, 글로벌 브랜드 쇼핑몰이 있어요.
한편, 아쿠아플라넷은 해양생물(30여종, 3만5천여 마리)과 육상생물(20여종, 1천5백여
마리)을 동시에 관람할 수 있는 수도권 최대 규모의 시설이에요.



인심이 넘치는 문화공연장, 전통시장



매월 3일, 8일에 서는 일산 민속5일장은 100년의 역사가 깃든 전통시장이에요. 항상 열리는 원당시장과 최근 5일장을 열어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능곡시장은 고양시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생한 모습을 느낄 수 있는 곳이죠. 고양시는 전통시장의 발전을 위해 국악, 가요, 연극 등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어요.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은 2017년에 개관한 국내 최대의 체험형 자동차 테마파크로 자동차의 탄생 과정과 기능을 친근하고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자동차를 보고 듣고 느끼는 새로운 여행을 통해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자동차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지요.



고양시는 꽃의 도시인 만큼 화훼산업이 유명해요.
또한, 킨텍스를 중심으로 하는 마이스산업, 신한류 드라마나
영화 제작을 지원하는 방송영상산업,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공예산업들이 알려져 있지요. 우리 고양시가 일구고
세계가 감탄하는 핵심산업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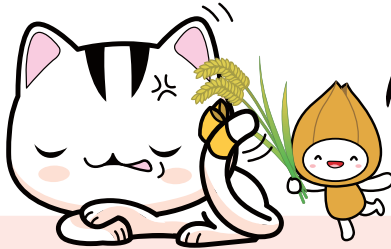
화훼산업

고양시가 꽃의 도시로 유명하다는 건 고양시민의 기본 상식!
꽃의 도시인 우리 시에서는 세계적인 꽃 축제 '고양국제꽃박람회'가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박람회를 열 수 있었던
고양 화훼산업의 명성은 이미 해외에서 배워갈 정도로 수준이 높습니다.

마이스산업

마이스(MICE)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의 4개 분야의 머리 글자를 합쳐 만든 신조어로 비즈니스 행사와
관광이 결합된 사업을 지칭합니다. 고양시의 대표적인 전시·컨벤션 시설인
킨텍스에서는 세계적 규모의 전시가 열려 전세계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어요.





친구야, 일어나~~~~
아직 고양에 대해서
볼것들이 많이 남았다구!



방송영상산업

고양시에서 드라마나 영화가 많이 촬영됐다는 사실은 알고 있죠?
‘드림하이’, ‘K-pop 스타’, ‘해운대’, ‘가문의 영광’ 등 수 없이 많답니다.
MBC드림센터, SBS제작센터, 고양아쿠아스튜디오 등 전국 최고 수준의
방송지원 시설을 갖춘 방송영상산업의 대표 도시이자 신한류의 중심지입니다.

공예산업

목공예, 민속공예, 한지공예, 도자공예, 압화공예 등 중소기업 수준의 공예업체
300여 곳에서 5명의 명장이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목공예가 전국적으로 유명하답니다.
지영동 공예단지 내에 29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호수공원에 공예품 홍보전시관을
운영하는 등 시에서는 각종 지원을 통해 공예산업 발전에 힘쓰고 있죠.





세계가 즐기는 고양의 축제, 고양국제꽃박람회

1997년부터 3년을 주기로 개최해오던 고양국제꽃박람회는 2013년부터는 매년 4월부터 5월초까지 개최해요. 35개국 300여개의 국내·외 화훼업체가 참가하며,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화훼판매장 등을 즐기기 위해 100만 명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이 고양국제꽃박람회를 찾아요.



예술로 물드는 거리, 고양호수예술축제

호수, 거리, 자연, 사람이 어우러지는 도심의 축제인 고양호수예술축제는 시민과 예술가가 함께 거리를 누비며 예술에 물드는 거리예술축제랍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의 유명한 예술가들이 초청되어 매년 명성을 높여가고 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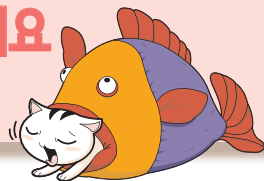
행주얼의 계승, 행주문화제

임진왜란 3대첩의 하나인 행주대첩의 승리를 기념하고 행주얼을 후대에 전하고자 1986년부터 시작된 고양시의 대표적 전통 문화 축제예요. 행주산성과 고양시 일대에서 펼쳐지며 권율 도원수 승전거리축제, 문화공연, 전통문화체험 등 여러 가지 행사가 펼쳐지죠.



행주대첩의 넋을 기리며, 행주대첩기념제

매년 3월 14일 행주산성에서 열리는 행주대첩제는 행주대첩의 승리를 널리 알리고 국난 극복 정신을 후대에 전하기 위한 문화행사예요. 권율 장군이 이끄는 병사와 부녀자까지 2,300명이 함께 왜적 3만여 명과 맞서 12시간 동안 9번에 걸친 싸움 끝에 왜국을 격파한 업적을 기리고 있어요.



비옥한 땅과 청정한 환경, 지역 농민의 정성으로 키워 믿을 수 있는
싱싱한 고양시 농특산물과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전통 공예품을
포함한 우리 고양시의 다양한 특산물을 소개합니다.

행주치마 고양쌀

한강 하류의 비옥한 평야와 최첨단
시설에서 생산된
친환경 고품질의 쌀

행주한우

전국 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최고의 등급을
인정받고 대통령상을 수상한
무항생제 명품 한우

고양쌀막걸리

고 박정희 대통령이 즐겨 찾았으며 정주영
현대그룹 전회장이 북한의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선물했던 일화로 유명한
100년 양조비법의 장인주

접목선인장

국내 최대 선인장단지에서 재배되며
세계 유통 물량의 80%를 차지,
비모란접목 선인장은 로열티를 받으며
23개국에 수출

장미

전국 지자체로는 최초로 국산 품종인
'고양1호' 장미 신품종 개발에
성공하고 일본 수출

일산파프리카

최첨단 시설과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된 최고 품질로
우수농산물 인증(GAP) 획득

블루베리와인

블루베리를 100% 자연 발효시킨 제품으로
일반 와인에 비해 부드러워
포도주 애호가들에게 인기

일산열무

열무 재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일산 지역의 토양과 기후로
최고의 열무를 생산

전통공예

고양시 지역특화산업으로
목공예, 옷칠공예, 도자기공예, 옥공예,
섬유공예, 유리공예 제품을 생산, 판매

압화공예

최상의 압화 가공기술로 각종 대회
수상 및 전시를 통해 활발한 국제교류 등
폭넓은 활동 추진



고양시청은 어떤 일을 하지?

고양시청과 시의회는 고양시의 중요한 일을
처리하고 결정하는 대표적인 기관이에요.
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관여하여 정책을 세우고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나도 이담에 커서
고양시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래요



4 -1

고양시청은 어떤 일을 하나요?



고양시청은 고양시를 대표하여 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힘을 쏟고 있어요.



고양시 살림을 맡아 해요

시청에서 처리하는 일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양시의 한해 예산을 짜고 세금을 거두며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시의 예산을 관리합니다.

행정지원과 / 주민자치과 / 예산법무과 / 세정과 / 회계과 / 정보통신과



더 살기 좋은 고양을 만들어요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열심히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요.
또한 도심과 녹지가 어우러진 살기 좋은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 장항습지를 지키고
생태공원을 만드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일자리창출과 / 지역경제과 / 환경보호과 / 생태하천과 / 청소행정과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져요

우리 시에 소외된 이웃이나 여성·아동·청소년·노인 등 약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복지 제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요.
또,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위생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땀 흘리고 있지요.

복지정책과 / 노인복지과 / 장애인복지과 / 여성가족과 / 아동청소년과 / 위생정책과





명품 문화·교육도시로 키워요

교육 환경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또한, 문화·예술의 도시답게 많은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고양시 스포츠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 / 문화예술과 / 체육진흥과



매력적인 창조도시로 나아가요

고양시는 킨텍스라는 국제적 수준의 전시시설이 있어요.
킨텍스 중심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떠오르는 마이스산업, 관광산업,
방송영상산업 분야를 키워 경쟁력 있는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마이스산업과 / 신한류관광과 / 첨단산업과



시민의 안전과 편리한 교통을 책임져요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와 예방홍보에 힘쓰고,
더 빠르고 편리한 교통체계를 위해 버스노선을 조정하거나 주차장 시설을
늘리는 등 교통 전반에 대한 일을 책임지고 있어요.

시민안전과 / 교통정책과 / 대중교통과 / 도로정책과



멋진 도시로 계획해요

건물이나 다리를 안전하고 튼튼하게 건설하고 도시의 외관을
더 아름답게 꾸미는 일이나 낙후된 지역 환경을 개선하는 일,
도시재생사업 등을 책임집니다.

도시계획과 / 주택과 / 건축과 / 도시정비과 / 도시재생과





고양시청은 사람도 자연도 건강하게 해요

▶ 시민 건강의 요람, 고양시 보건소

시민의 보건행정과 건강증진을 위해 의약관리, 질병 예방 등을 책임지는 곳으로 건강한 고양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따뜻한 복지도시를 목표로 하는 고양시는 보건소 방문이 불편한 시민들을 위해 경로당과 마을회관, 지역아동센터, 센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을 매주 2~3회 찾아가는 '이동보건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일반내과, 한방내과, 치과, 치매상담 등의 분야를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체지방, 비만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으로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는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농업기술을 발전시켜 환경은 깨끗하게 지키고 농가 소득은 높이는 등 농업 발전을 책임지는 곳입니다.

학교급식 지원

전국 최초로 고양시에서 시작한 친환경무상급식에 지역에서 생산된 싱싱하고 건강한 로컬푸드를 지원하고 있어요

친환경농업

농업과 환경의 조화를 통해 환경을 지키면서 농산물의 안전성도 추구하는 농업으로 유기농업과 저투입농원으로 구분된대요

농심테마파크

선사시대부터 근대까지 농경문화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 공간도 운영하고 있어요.

▶ 고양시 상하수도 사업소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시민들이 깨끗한 수돗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더러워진 물을 정화시설과 하수처리 시설을 통해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 환경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을 보관하는 배수시설이나 물을 나르는 관로를 설치하는 등 고양시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4 - 2

고양시의회는 어떤 곳인가요?

시의회는 시민들이 직접 뽑은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열어
시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시민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는 의결기관이에요.
우리 지역일은 우리가 해결하는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합니다.

시의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 의원

선거에서 시의원으로서 당선되어야 하며 임기가 끝나면 다시 선거에 나올 수 있어요.

• 의장과 부의장

의장은 의회를 대표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의회사무를 감독해요.

부의장은 의장이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 수행하지요.

• 위원회

복잡한 지방행정을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지식을 가진 의원들로 구성됩니다

•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을 중심으로 전문위원과
4개 팀으로 구성되며 시의회 활동을 지원해요.



시의회에서 하는 일이 궁금해요

• 정책을 결정해요

시의회는 고양시민의 뜻을 모아 행정에 반영해요. 조례를 만들고
수정하거나 폐지하는 일을 하고, 시의 예산과 결산을 심사하며 승인하지요.

• 시민을 대표해요

105만 고양시민을 대표해서 시의 중요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일, 또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일을 결정해요.



• 갈등을 조정해요

고양시민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
갈등이 생겼을 경우 이를 조율하는 조정자 역할을 합니다.

• 행정을 감시해요

고양시 또는 고양시 아래의 산하기관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사무를 감사하고 조사해요.



상임위원회를 소개합니다

고양시의회는 5개의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어요.
상임위원회는 회기에 접수된 안건을 1차적으로 조사하고 심사합니다.
즉, 이 안건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고양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지를
논의하여 본회의에 올려서 의결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죠.

• 의회운영위원회 9명

회기 및 감사일정 등 의회관련 규정의 제·개정, 기타 의회사무국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루며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의회운영위원회는
아래 위원회 별로 위원 2명씩 참여하여 구성됩니다.

• 기획행정위원회 8명

시민의 편익증진과 권리향상을 위한 정책수립, 공공사업의 지원, 공직자 교육 및
공직사회 기강확립 등 시정의 중추적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 환경경제위원회 8명

수질, 대기, 토양, 소음 진동에 관한 문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녹지 관리 및
생태계 보전 등의 환경관리 분야와 국제화 전략 등 지역경제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 건설교통위원회 8명

도시계획과 지역균형개발, 주거환경 개선사항 등 고양시를 쾌적하고 안전한
인간 중심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고양시 건설 및 교통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 문화복지위원회 8명

고양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 보건, 그리고 여성 및
가족정책 분야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Tip



시청 & 시의회로 견학가요

고양의 모든 것을 배우러 고양시청 · 고양시의회로 go, go!

신청 문의

고양시청 www.goyang.go.kr
고양시의회 www.goyangcouncil.go.kr

지역별 도서관 안내



덕양구 지역

도서관	전화(8075-)	휴관일
화정도서관	9215	2, 4번째 월요일
행신도서관	9240	1, 3번째 월요일
원당도서관	9259	
신원도서관	9340	2, 4번째 월요일
삼송도서관	9360	1, 3번째 월요일
화정어린이도서관	9299	
행신어린이도서관	9278	2, 4번째 월요일

일산동구 지역

도서관	전화(8075-)	휴관일
아람누리도서관	9038	1, 3번째 월요일
마두도서관	9067	2, 4번째 월요일
백석도서관	9090	1, 3번째 월요일
풍동도서관	9148	
식사도서관	9190	2, 4번째 월요일

일산서구 지역

도서관	전화(8075-)	휴관일
대화도서관	9130	1, 3번째 월요일
한피도서관	9115	2, 4번째 월요일
덕이도서관	9320	1, 3번째 월요일
주엽어린이도서관	9170	2, 4번째 월요일
가좌도서관	9380	

*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은 휴관(단,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칠 경우 일요일 휴관)

공립작은도서관

도서관	전화	휴관일
햇빛마을 작은도서관	972-9955	1, 3, 5번째 토요일
고양 작은도서관	963-4321	2, 4, 5번째 토요일, 매월 둘째주 월요일
푸른마을 작은도서관	962-6996	1, 3, 5번째 토요일, 매월 셋째주 월요일
관산 작은도서관	962-1969	매주 토요일, 매월 셋째주 월요일
화전 작은도서관	02)3159-2266	
고양윤창 작은도서관	070)8843-9633	1, 3, 5번째 토요일, 매월 셋째주 월요일
햇빛21 작은도서관	938-9400	
신도 작은도서관	02)381-9095	1, 3, 5번째 토요일
권율 작은도서관	02)350-6696	법정공휴일
대덕 작은도서관	02)3159-8501	매주 토요일
고양포들이 안전도서관	971-2589	매주 월요일
마상공원 작은도서관	070)4422-2587	
백마 작은도서관	976-1005	법정공휴일
사리현 작은도서관	070)8736-5530	매주 월요일 * 일 10:00-14:00(운영)
호수공원 작은도서관	901-2375	매주 월요일, 일요일(11월-2월)
강촌공원 작은도서관	901-6957	매주 월요일
탄현 작은도서관	915-8875	1, 3, 5번째 토요일
대화마을 작은도서관	924-0467	매주 월요일

* 일요일 포함 법정공휴일은 휴관

책은 마음의 양식!

독서하는 배움의 도시 고양에는 17개의 시립도서관과 18개의 공립 작은도서관이 있어 고양시민 누구나 마음껏 책을 볼 수 있습니다. 책도 보고 산책도 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소풍 가는 건 어떨까요?



고양시 이동도서관

고양시 전역을 순회하는 이동도서관은 도서관 봉사를 제공하지 못했던 지역을 위해 총3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일정표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goyang-smu.ok.kr/library | 운영시간 10:00~17:00 | 주말 및 국경일은 휴관

찾아가는 책놀터 : 전국 최초 트랜스포머형 이동도서관인 책놀터 버스로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 관련문의: 031)906-5301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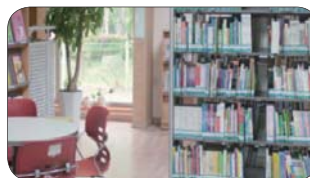
누구나 책 앞에 평등한 도시 고양! 도서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책바다 : 고양시립도서관에 원하는 자료가 없을 경우, 다른 지역의 도서관에 신청하여 소장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전국 도서관 자료공동 활용 서비스(유료이용)

두루두루서비스 :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택배를 통해 대출해 드리는 서비스

내 생애 첫도서관 :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임산부와 영우아에게 택배를 통해 집으로 대출해 드리는 서비스

※ 관련문의: 고양시 도서관센터 ☎ 031)8075-9034



옛날 아주 먼 옛날, 전설 따라 고양 삼만리

01

고봉산 고(高)씨와 심학산 심(沈)씨 이야기

일산동구 석사동

세상의 모든 산과 나무들의 처음 생겨나던 시절, 하늘에 있던 '고봉산'과 '심학산'은 서로 땅에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힘을 겨루고 있었다. 그러다 힘이 조금 더 센 고봉산이 가장 좋은 땅인 고양에 자리잡았고 심학산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채로 파주시 교하 땅에 자리잡았다. 그러던 어느 날 북한산 백운봉이 고봉산을 찾아와 함께 더덕술을 밤새 마셨는데, 고봉산은 목이 말라 한강물을 다 퍼 마시고 잠들었다. 다음날 심학산 아랫마을에서는 갑자기 큰 홍수가 일어났다. 고봉산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간밤에 자신이 한강에 오줌을 싸서 홍수가 일어난 것 아니겠는가. 심학산은 분해 하며 고봉산 쪽으로 돌팔매질을 하고 있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개성의 송악산이 꾀를 내었다. 자신의 딸인 정발산과 오두산을 각각 고봉산과 심학산에게 시집을 보내 가정을 꾸리도록 하여 둘이 사이를 좋아지게 한 것이다. 이후, 정발산과 오두산이 임신을 하자 고봉산과 심학산은 서로 약속을 하였다. "우리가 언제 또 다시 싸움을 벌일지 모르니 우리 자손들을 두 산 사이에 살게 하자." 그리하여 고봉산 밑에는 고(高)씨들이, 심학산 밑에는 심(沈)씨들이 모여 살게 되었고 두 산은 더 이상 싸우지 않았다고 한다.

02

고봉산과 한씨미녀 이야기

일산동구 고봉동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서로 대치하던 삼국시대, 일산은 백제의 영토에 속해 있었다. 일산 중심에 자리한 고봉산은 매우 중요한 요새 겸 요충지로 고구려는 늘 이곳을 점령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았다. 당시 이곳에는 '한주'라는 아름다운 미녀가 살았는데, 어느 날 백제를 정탐하러 잠입한 고구려 태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헤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 시간이 흘러 백제 땅에서 임무를 마친 태자는 훗날을 기약하고 한주를 남겨둔 채 고구려로 돌아가 왕이 되니 바로 고구려의 '안장왕'이다. 한편, 백제 땅에 남은 한주를 보고 반한 지방 태수는 그녀에게 청혼을 하게 된다. 그러나 장래는 약속한 사람이 있다며 한사코 거절하는 한주를 보고 태수는 침착과 내통한다 의심하여 옥에 가두었다. 이 소식을 들은 안장왕은 '을밀'이라는 장수를 시켜 한주를 구하게 했다. 을밀 일행은 백제에 잠입한 뒤 태수가 생일잔치를 벌일 때 기습하여 태수를 죽이고 한주를 구출했고, 작전이 성공했다는 표시로 산에 올라 봉화를 올렸다. 국경에서 기다리다가 봉화를 본 안장왕은 크게 기뻐했다. 이 봉화를 밝힌 산이 바로 '고봉산'이다. 이후 두 사람은 감격적인 재회를 하고 혼인을 맺게 되었다.

역사와 문화가 오래된 고장인 만큼 고양은 다른 고장보다
월등히 많은 옛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어요.
동네마다 마을마다 전해지는 아름다운 설화를 들어볼까요?

03

두꺼비 바위 이야기

일산동구 성석동(고봉동)

누런 용이 승천했다고 전해지는 황룡산이 바라다보이는 두테비 마을은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에 의해 매년 피해를 보았다. 이무기가 유독 이 마을의 사람들을 괴롭힌 것은 황룡산에서 용이 되려는 순간, 불결한 사람이 그 장면을 본다든가 하여 부정을 타서 승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후부터 용으로 승천하지 못한 보복으로 두테비 마을 사람들을 해치는 이무기 때문에 사람들의 걱정이 태산과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을 지나던 한 장수가 이무기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두꺼비이니 마을 사람들이 모두 힘을 합쳐 황룡산이 바라다 보이는 산꼭대기에 이무기를 물리칠 두꺼비를 만들라고 일러 주었다. 이에 사람들이 힘을 모아 실제 두꺼비의 수천 배 크기가 되는 돌 두꺼비를 만들어 황룡산에서 약 1.5Km 떨어진 곳에 놓아두었다. 두꺼비는 구렁이에게 먹히지만, 두꺼비를 먹은 구렁이는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 같은 두꺼비 바위를 만들어 놓으면 이무기가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하여도 이 마을은 오히려 번성할 것이라고 장수를 믿었던 것이다. 커다란 두꺼비 바위를 만드니 과연 이 두꺼비를 무서워한 이무기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이 바위에는 지금도 장수의 손가락 자국과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고 한다.

04

박태성과 인왕산 호랑이의 40년 우정 이야기

일산동구 고봉동

조선조 한양 인근에 유명한 효자 '박태성'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어려서 아버지를 잃은 태성은 장성한 후 못다한 효도를 하기 위해 3년상을 치르러 매일 아침 인왕산으로 아버지 시묘를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눈보라를 만나 정신을 잃은 태성은 호랑이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건지고 그날 이후 매일 시묘길에 동행하며 우정을 쌓았다. 하루는 마을사람들이 가축을 잡아먹는다며 호랑이 사냥에 나섰다. 태성은 호랑이를 피신시키기 위해 다급히 산에 오르던 중 큰 꿈을 마주치게 되었다. 그 순간 호랑이가 나타나 꿈을 물리치고 태성을 살렸으나 마을사람들의 화살에 맞아 상처를 입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이튿날, 마을 어귀에는 가축들을 잡아먹던 늑대 한 마리의 시체가 놓여져 있었는데 목덜미에는 호랑이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었다. 어느덧 태성도 늙고 병들어 아버지 묘 옆에 묻히게 되자 그의 묘 앞에 몇 날 며칠을 구슬피 우는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얼마 후 마을 사람들이 묘에 가보니 호랑이가 쓰러져 죽어 있었다고 전해진다. 덕양구 효자동의 지명은 박태성의 정려비에서 유래한 것으로 묘 옆에는 40년 동안 우정을 나눈 인왕산 호랑이 묘가 함께 있다.



공양왕의 삽살개 이야기

일산동구 식사동

공양왕(1345~1394)은 고려의 마지막 왕이다. 고려 말 역성혁명을 일으킨 이성계에 의해 왕위 자리를 빼앗긴 공양왕은 이성계 무리를 피해 가족과 아끼던 삽살개를 데리고 고양 견달산의 한 절로 숨어 들었다. 이 절의 스님은 왕을 보더니 “천하의 주인이 집도 없이 떠도는 신세가 되셨는지요” 하며 공양왕과 가족을 절에 머물게 하였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성계 무리가 이 절로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스님은 왕과 가족을 견달산의 암자로 피신시켰다. 왕은 “그들이 설마 개를 체포하지는 않을 테니 절에 남겨두었다. 암자에 갇혀 있던 공양왕과 가족은 얼마 못 가 관원들에게 발각되고 말았는데 이들을 압송하러 온 관리 중 하나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오래 전 궁에 갔을 때 보았던 삽살개가 절에 있는 걸 보고 눈치를 챘지.” 압송되는 공양왕을 보자 삽살개가 달려들어 꼬리를 부비다가 스스로 연못에 뛰어들어 죽고 말았다. 현재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이 있는 식사동(食寺洞)은 왕에게 밥을 날라주던 절 이름을 마을 이름으로 삼은 곳이다. 마지막 왕의 한과 비통함이 서려 있는 공양왕릉 고릉의 봉분 앞에는 왕의 압송을 슬퍼하며 목숨을 버린 삽살개의 석상이 남아 있다.



숫고개와 이성계 이야기

일산서구 탄현동

조선의 시조 이성계가 새 나라의 수도를 정하기 위해 동생과 함께 여기저기를 돌아다닐 때였다. 고양 땅 탄현, 일명 숫고개를 넘어가고 있는데 화창한 하늘에 갑자기 구름이 몰리고 소나기가 퍼붓기 시작했다. 이성계와 동생은 바위 밑 굴을 발견하고 비를 피해 들어가 젖은 옷을 말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굴 밖에서 “어~홍”하는 호랑이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닌가. 아뵘싸. 그곳은 호랑이 굴이었던 것이다. 손발이 덜덜 떨렸지만 동생은 정신을 가다듬고 형 대신 호랑이 밥이 되고자 했으나 이성계를 그럴 수 없다면 뜯어 말렸다. 이에 동생은 사람 목숨은 하늘에 달려 있으니 각자 밖으로 옷을 던져 호랑이가 깔고 앉은 옷의 임자가 굴 밖으로 나가 호랑이 밥이 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이성계는 하늘의 뜻에 맡겨보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형제가 동시에 굴 밖으로 옷을 던지니 호랑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성계의 옷을 깔고 앉았다. 이성계는 성큼성큼 굴 밖으로 나갔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호랑이는 이성계 대신 굴 안의 동생에게 달려드는 것이 아닌가. 호랑이도 나라를 세울 큰 인물을 알아본 것이다. 마침내 이성계가 조선의 왕이 된 후, 동생의 명복을 빌기 위해 호랑이굴 근처에 뗏자리를 썼다. 그 뗏자리는 현재 탄현동 홀트학교가 있는 고개 쪽이라고 지역 어른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07

용채이 별판 흰돌과 아기 이야기

일산동구 백석동

아주 오랜 옛날, 고양시 각 마을은 모두 이름이 있었는데 유독 일산의 남쪽 끝에 위치한 한 마을은 이름이 없어 벼웃음거리가 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해 여름, 큰 홍수로 한강의 물이 갑자기 불어나더니 한강 상류 쪽에서 하얀 돌 하나가 떠내려와 한쪽 산귀통이에 걸려 멈추었다. 돌 위에는 갓난아이 하나가 타고 있었는데, 눈빛이나 기개가 범상치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와 흰돌이 하늘에서 내려준 신령한 것이라 믿고 정성껏 돌보았고, 마을 이름도 백석(白石)이라 정하였다. 이런 일이 있은 후 백석마을은 날로 크게 번성하고 좋은 일만이 생겼다. 하얀 돌과 아이에 얽힌 소문은 이웃 마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소문을 들은 옆 마을의 흑부리 영감은 이를 시기해 백석 마을 사람들 몰래 아이를 자루에 담아 한강에 버리고 바위마저 깨뜨려 버렸다. 그 순간 하늘에서 번개와 벼락이 치더니 흑부리 영감을 재로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이후로 백석마을에도 예전의 부귀영화는 사라지고 말았다. 흰돌은 실제로 마을의 발전과 안녕을 기원하며 도당제를 올리던 제단으로 현재 일산동구 백석1동에 그대로 보존되어 마을 주민들이 흰돌제사를 지내고 있다.

08

베라산마을 아기장사 이야기

덕양구 성사동

옛날 성사동 별아산 아래에 있는 베라산마을에 심상치 않은 아이가 태어났다. 아기가 태어나던 날, 마을 앞 500년 묵은 느티나무가 아기 울음소리에 놀라 벌벌 떨었고, 동네 사람들은 큰 울음소리에 귀가 얼얼하여 며칠 동안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였다. 아기장사는 무럭무럭 자라 두 살이 되었는데, 별아산 큰 바위로 공기 놀이를 하고 벼락 같은 소리를 외치기도 했다. 또한, “용마야, 용마야!” 하고 고함을 지르면 날개 달린 용마가 날아와 아기를 태우고 달리기도 했다. 어느 날 호시탐탐 조선 땅을 노리던 일본 첩자가 이 소문을 듣고 마을로 숨어들어와 동네 수다쟁이 넘죽에미를 매수하여 아기장사의 날개를 인두로 지저버리게 했다. 아기장사는 고통스러워 기절했는데 이후로는 짓을 먹지도 않고 눈물만 흘리는 것이었다. 아기의 부모는 치료법 못한 채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파주 보광사의 한 스님이 마을에 들렀다가 아기장사를 보고 ‘큰 인물이 될 아이가 가엽게 되었다’며 절로 데려가 나라를 위해 일할 인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몇 년이 흐른 뒤 왜놈들이 침략해 조선 곳곳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보광사의 아기장사가 왜놈들을 물리치고 사람들을 구했다는 이야기가 베라산마을까지 전해졌다.



대화동 내촌마을에는 백암(白岩)이라는 큰 웅덩이 하나가 있었는데 수 백년 묵은 이무기 두 마리가 살고 있었다. 그들은 용이 되기 위해 천년기도를 올리는 중이었는데 승천을 3일 앞두고 있었다. 천 년이 되기 바로 전날, 이무기들은 바깥 출입을 삼가고 조용히 보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 역시 이무기의 승천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던 중이었다. 이런 와중에 동네 말썽꾸러로 소문난 철구는 임신한 형수에게 새우젓을 잔뜩 먹이는 장난을 쳤다. 짠 새우젓을 너무 많이 먹은 형수는 밤새 물을 들이켜는 바람에 잠도 못 자고 오줌이 마려워 변소를 들락거렸다. 이윽고 아침 해가 뜨기 전 이무기들은 하늘 높이 솟아 오르며 용의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때, 저 아래서 웬 임신한 여자가 오줌을 누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닌가. 순간 하늘문이 닫히더니 그대로 웅덩이 속으로 곤두박질치고 말았다. 화가 난 이무기들은 그날부터 마을의 논과 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이 용서를 비는 제사를 올리며 이무기들을 달래자 정성을 가루히 여겼는지 잠잠하게 지내다가 1년에 딱 한 번 동짓날 초하루에만 웅덩이에서 나와 횡포를 부리고는 하였다. 이날이면 마을 사람들은 용구재라는 고개에 올라 이무기에게 용서를 빌고 큰 제사를 지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는 용구재 이무기제다.

불광동(현재의 연천마을)에 살던 오씨 여인은 성품이 자애롭고 현명하여 오여사(女士, 여자선비)라고 불렸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은 고양 벽제관 부근에서 왜군과 큰 전투를 벌이다 패퇴하여 북한산으로 숨어 들었고 왜군은 창릉천에 주둔하며 길목을 막고 조선군이 내려오기를 기다렸다. 이에 오씨 여인은 피를 내어 북한산의 노적봉 봉우리를 뱃집으로 둘러싸고 조선병사들의 군량미를 쌓아놓은 것처럼 위장하여 왜군의 사기를 꺾었다. 또한 창릉천에 석회를 풀어놓고 쌀 씻은 물이라 속여 왜군에게 먹이고 배탈이 난 왜군들을 조선병사들이 물리치도록 기회를 마련했다. 1593년, 행주산성으로 물려온 3만 왜군에 대해 권율장군은 2800명의 조선군을 데리고 용맹하게 싸웠지만 화살과 군량미가 떨어져 역부족인 상황이 되었다. 이때 오여사는 공간을 열어 식량을 제공하고 치마로 돌을 옮기는 치마부대를 이끌며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큰 공을 세우고 밥할머니라는 명성을 얻었다. 이것이 바로 임진왜란의 3대 대첩 중 하나인 행주대첩이다. 인조가 그녀의 수훈을 기리기 위해 세운 석상은 현재 덕양구 동산동 모퉁이 공원에서 행주대첩을 기억하듯 북한산을 바라보고 있다.



꽃과 찬우물이 아름다운 곳을 나타내는 화정동은 화수촌, 냉정, 백양동 등 일반 농촌마을이었다. 1990년대 초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져 지금의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바뀌기 전, 자연마을 꽃물(화수)에는 맑고 깨끗한 저수지가 있었다. 봄이 되어 온 산에 진달래가 만개할 때면 이 저수지에 진달래가 그대로 비쳐 지나가는 길손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였다. 그래서 꽃물이라고 불리다가 나중에 골머리로 변화였다. 냉정은 찬우물이라는 뜻이다. 화정은 순우리말로 꽃우물이다. 꽃물을 현재 화정1동에 해당되는 곳으로 개울에 꽃이 떠내려 간다고 하여 그리 불리게 되었다. 또 다른 유래로는 봄이면 시냇물에 진달래 꽃잎이 마을로 떠내려와 향기를 풍겼다고 하여 꽃물이라 불렀다는 이야기도 있다. 현재 화정2동인 찬우물은 왕의 능 자리를 찾아 서삼릉 자리를 파니 계속 물이 솟아 능자리를 포기하여 하자 지관이 나타나 이곳에서 십리 이상 떨어진 곳에 우물을 파면 이 물이 모두 없어질 것이라 하였다. 이에 십리 떨어진 곳, 지금의 화정동에 우물을 파니 물이 유난히 차고 맛있었다. 서삼릉의 물도 모두 빠져 무사히 왕릉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한다. 그 후 이 우물을 찬우물이라 불렀는데 어떤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았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300년 전, 행주 나루터 앞 돌뽕구지 마을에 금원이라는 소년이 있었다. 금원은 한강에서 물고기를 잡아다 팔아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다. 당시 그 부근에는 웅어라는 물고기가 잡혔는데 어쩌나 귀한지 임금님만 드실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었다. 이를 어기면 돌뽕구지 석빙고에 갇혀 얼어 죽는 형벌을 받아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 사는 정판서의 셋째 딸 란사가 이곳으로 오게 됐다. 어려서부터 몸이 약해 요양을 하려 온 것이었다. 그런 란사와 금원은 마주치자마자 열렬한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가을로 접어들자 란사의 병이 악화되었고 이에 가슴 아파하던 금원은 고봉산 만경사 주지스님에게 웅어를 잡아 먹이면 란사의 몸이 회복될 것이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금원은 웅어를 잡으러 제사를 지내고 한강으로 나갔는데 그때 갑자기 커다란 웅어 한 마리가 금원의 배로 저절로 튀어 올라와 입 속에서 쪽지를 건네는 게 아닌가. '란사를 구하게 되었으나 너는 국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웅어를 잡았으니 대신 스스로 석빙고에 들어가는 벌을 받아야 해.' 그러나 란사를 깊이 사랑했던 금원은 두려움 없이 웅어를 정판서에게 갖다 주고 스스로 석빙고를 찾아가 얼음이 되고 말았다. 후에 몸이 회복된 란사는 금원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슬퍼하더니 홀연히 사라졌다고 한다. 석빙고 안에 또 하나의 얼음이 생겼다는 소문이 돌 뿐이었다. 또 어떤 사람은 해질 무렵 금원과 란사로 변한 두 마리의 웅어가 무지개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았다고 한다.



고양사랑 낱말퍼즐



가로 세로 퍼즐을 풀면,
고양시 상식이 머리에 **쏙쏙!**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정답은 다음 메모페이지에...

【 가로열쇠 】

1. 불교의 예배용 · 교화용 탱화를 제작하는 장인을 일컬음
3. 기업회의(Meeting), 인센티브 관광(Incentive Travel),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의 영문 첫 알파벳을 딴 단어
5. 고양시의 대표적인 전시컨벤션 시설
8. 꽃이 무리지어 피어 있는 것을 뜻하는 순우리말
10. 한자어 일산(一山)을 우리말로 바꾼 것
12. 전라도와 경상도 사이에 열리는 장터. 노래 제목이기도 함. 00장터
13. 여름과 겨울이 공존하는 테마파크로 일산서구 한류월드로에 위치
15. 성라산촌의 '성'자와 사근사리마을의 '사'자를 딴 덕양구의 동 이름
17. 예전에 훈장님이 한문을 가르치던 글방
19. 30여 종의 멸종 위기 동식물이 사는 고양시 습지.
한강 하구 00습지
20. 효자 박태성이 아버지 3년상을 치르러 매일 오르내렸던 산
22. 원래 있던 농골마을의 '농골'을 한자로 바꾼 동 이름. 00동
23. 마두동에 있는 고양시의 대표 전문공연예술센터

【 세로열쇠 】

2. 고양시를 대표하는 꽃으로 5월에 가장 아름다운 꽃. 00꽃
3. 일의 끝맺음을 뜻함
4. 피부를 영어로 하면?
6. 신발 바닥에 쇠 날을 붙이고 얼음 위를 지치는 운동 기구
7.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에 있는 백제시대의 산성
9. 빨주노초파남보. 비 온 뒤에 하늘에 뜨는 것
11. 88올림픽 당시 마상 장애물 경기장이었던 곳으로 원당에 있음.
원당00목장
12. 두 사람이 멀어졌다 다시 친해진다는 뜻.
'화합 화(和)'에 '함께 동(同)'자를 씀
13. 원당에 있는 3호선 지하철 역
14. 운동이나 놀이를 위해 만든 체육시설. 고양종합000
16. 송강 정철의 대표작으로 임금에 대한 사랑을 노래한 작품
18. 고봉산이 고양의 중심이라는 뜻으로 붙여진 등 이름.
'가운데 중(中)', '뒀 산(山)'
21. 어떤 일을 한 뒤에 얻어지는 좋은 결과